

대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로어성구들의 의미론적특성

최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외국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을 풍부하게 줄뿐만아니라 그것을 원리적으로도 깊이있게 가르칠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성구는 말과 글의 표현성을 높이면서 거기에 섬세한 감정정서적빛깔을 부여하는것으로 하여 일상언어생활에서 적극 쓰이고있다. 외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성구론적단위들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가르쳐주어 학생들이 언어정황과 계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로어성구들가운데서 대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성구들의 의미론적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대비법은 대립, 반대 또는 상반관계에 있는 언어수단들을 짝을 맞추어써서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문체론적수법이다.

대비법은 진술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형상적으로 전달하는것과 동시에 어떤 현상을 묘사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적빛깔을 띠는것으로 하여 언어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적극 쓰이고있다. 특히 이 수법은 성구를 형성하는데서 능동적으로 활용된다.

대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로어성구들은 대상적, 과정적, 성질-상황적, 표징적, 양태-감동사적, 량적성구들로 구분할수 있다.

대상적성구란 대상성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구들을 말한다.

대상적성구에는 우선 사람과 관련된 성구가 있다.

레: белая ворона 색다른 사람
чёрная кость 평민출신
умный дурак 명리한 바보
богатый нищий 부유한 거지
живой портрет 관박이
живой труп 산송장

우의 실례의 성구들은 《흰—검은》, 《현자—바보》, 《부자—거지》, 《산—죽은》과 같이 의미상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결합시켜 한사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성구들의 대다수는 대상적의미외에 부정적인 뜻빛깔을 보충적으로 가진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은 흔히 주위사람들의 화제에 별로 오르지 않아 언어생활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류다르게 즉 남다르게 처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면서 그것이 그대로 언어행위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기때문이다.

레: мертвые души 죽은 농노들
белые негры 흑인같이 흑사당하는, 아득바득 일하는 백인
гулливер и лилипуты 거인과 난쟁이들

우의 실례의 성구들은 《산—죽은》, 《흰—검은》, 《큰—작은》이라는 의미상 대립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나타낸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의미상 대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람을 나타내는 대상적성구

단위들의 대부분은 모순형용법구조로 되어있다. 즉 서로 상반되는 개념과 관련되는것으로 하여 대상론리적결합이 거의나 불가능한 단어들로 표현이 이루어져있다. 량립할수 없는 개념들의 내용속에는 완전한 일치는 물론 부분적인 일치의 가능성조차도 배제하는 징표들이 담겨져있다. 바로 이때문에 모순형용법적성구들의 구조에서는 의미상 대립되는 구성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표현적효과를 나타낸다.

대상적성구에는 또한 추상적개념을 나타내는 성구가 속한다.

레: легкая тяжесть 유쾌한 불쾌감

звонкая тишина 종소리속의 정적

우의 실패와 같이 대상의 질적특성, 주관적평가를 나타내는 추상적성구들은 야유평가적의미를 보충적으로 나타내는 모순형용법구조를 가지고있다.

레: начало конца 종말의 시초

и смех и горе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за и против 찬성과 반대

про и контра 가부

вопрос жизни и смерти 생사문제

이와 같은 추상적성구들은 사람의 감정, 느낌, 상태와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дела как сажа бела》(일이 잘 안된다), 《альфа и омега》(시작과 끝)과 같은 성구들은 《흰—검은》, 《처음—마지막》이라는 의미적내용들을 대립시켜 추상적개념을 나타낸다.

추상적개념을 나타내는 대상적성구들은 대비법으로 만든 대상적성구의 약 40%를 이룬다. 이러한 성구들은 의미가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쓰이고있으며 말과 글을 무게있으면서도 표현성있게 해준다.

과정적성구들은 대비법으로 만든 성구들가운데서 약 18%를 이룬다. 과정적성구들을 의미상 다양하게 구분할수 있지만 그 근처에는 항상 과정성이라는 공통적개념이 놓인다. 그렇다고 하여 성구구성요소자체내에서 과정적의미가 대비되거나 대비되는 대상을 가진 것만이 과정적성구부류에 속하는것은 아니다.

대비법으로 만들어진 과정적성구란 성구의 전체적의미가 과정성을 띠면서도 성구자체내에 의미상 서로 상반되는 구성요소들을 가지고있는 성구들을 의미한다.

과정적성구에는 우선 사람이 벌리는 활동을 나타내는 성구들이 속한다.

이 성구들은 개인이나 민족의 특이한 세계관을 반영한 활동, 교제활동, 사람의 품행과 행동 등을 나타낼수 있다.

레: вкусить от дерева познания добра и зла 선악과나무열매를 먹다: 지식을 얻다
начать за здравие, кончить за упокой 칭찬으로 시작하여 질책으로 끝내다
мягко стелет, да жестко спать 폭신한 잠자리 잔등 배긴다—말 단 집에 장이 쓰다

выходить сухим из воды 죄짓고 아무 벌도 안받다

валить с больной головы на здоровую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들씌우다

дневать и ночевать 밤낮을 보내다

играть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생사를 가지고 놀음을 하다

과정적성구에는 또한 사람의 상태를 특징짓는 성구들이 속하는데 심리나 감정, 육체

적상태, 사람이나 대상이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것 등을 나타낸다.

레: хочешь не хочешь 좋은싫든
любить ненавидя 미워하며 좋아하다
витать между небом и землей 공상에 잠기다
небо с овчинку кажется 눈앞이 캄캄해지다
хоть видит око, да зуб неймет 그림의 떡
перековать мечи на орала 장검을 보습으로 버리다

과정적성구에는 또한 사람이나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특징짓는 성구들도 속하게 된다.

레: смотреть сверху вниз 거만하게 대하다
менять гнев на милость 성을 풀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과정적성구들의 구조는 그 대부분이 의미상 대비관계에 놓이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어떠한 활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구들에서 행동의 주체는 항상 대상에 대한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대비는 실지 현상들에 대한 모습, 개념, 표상 등을 대립시켜 묘사를 두드러지게 하며 대조되게 한다.

구전문학에서는 펼치는 이야기거리를 눈앞에 보이는것처럼 생동하게 그리기 위하여 과정적성구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이때 대부분의 과정적성구들은 주위세계에 대한 주체의 활동을 특징지어주며 그에 대한 민간저술자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태도를 강조하여준다.

성질-상황적성구란 행동이나 징표를 나타내는 시간이나 조건, 특성 그리고 그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성구들을 말한다.

성질-상황적성구에는 우선 시간이나 위치상황을 나타내는 성구들이 속한다.

레: денно и ночью 밤낮으로
не по дням, а по часам 시시각각으로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조만간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모든 사람에게
вдоль и поперек 사방으로
взад и вперед 이쪽저쪽으로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생사기로에서
то там, то тут 가는 곳마다에
ни туда ни сюда 아무데로도

성질-상황적성구에는 또한 행동의 성질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성구들이 속한다.

레: душой и тело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вкось и впрямь 되는데로
всеми правдами и неправдами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оптом и в розницу 도매든 소매든
не в бровь, а в глаз 정통을 찔렀다

성질-상황적성구에는 또한 표징이나 행동의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성구들이 속한다.

레: то пусто, то густо 있으면 배터지고 없으면 굵는 판

ни тпру ни ну 움썅달썅 못하다

우의 실례에서 본 대부분의 성질-상황적성구들은 반대말들의 대비속에서 이루어져있다. 그것은 의미대립을 나타내려면 접중법에 의하여 상반되는 상황에까지 이룰수 있는 질적표징이 단어의 의미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성질-상황적성구단위들의 범주는 아주 폭이 넓으며 대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구의 약 30%를 이룬다. 이 성구들속에 있는 반의어들은 대부분이 접속사 и로 련결되어있다.(례: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вдоль и поперек, взад и вперед, вкось и впрямь 등)

엘. 아. 노비코브는 《대립물들은 본문속에서 때때로 생각하는바와 같이 대립될뿐만아니라 완결된 구조를 가지면서 합쳐지며 또 대비되고 분리되면서 어음교체되고 비교되면서 서로서로 보충할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성구단위에 속하는 반의어들은 련결과 비교관계도 이룰수 있다.

례: как небо от земли 천지차이

대상적 및 성질-상황적성구들은 광범한 독자들이 이야기의 내용을 명백하고도 형상적으로 리해하도록 도와주면서 널리 쓰이고있다. 명백하면서도 재치있는 명문장, 명표현들을 만드는데 틀에 박힌 표현들속에 들어있는 어휘요소들과 결말적 및 모순형용법적구조들이 리용된다. 바로 이때 의미론적으로는 합쳐질수 없는 단어들이 성구구성요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징표적성구들이란 사물이나 사람의 표징, 속성을 나타내는 성구들을 말한다.

례: далекое и близкое 멀고도 가까운것

живые и мертвые 산자와 죽은자

ни рыба ни мясо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ни богу свечка, ни черту кочерг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징표적성구들은 틀에 박힌 어휘요소들로 만든 두 성분 성구단위들이다.

례: ни дать ни взять 똑같다

ни пава ни ворона 이편도 저편도 아니다

양태-감동사적성구들이란 인간의 의사나 감정을 표시할뿐아니라 진술대상이나 대화상대방 또는 교체정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표현하는 성구들이다.

이 양태적성구단위들은 희망과 인사, 의사표시, 확신이나 불확신, 가능성이나 불가능성 등을 표현할수 있다.

례: Ни пуха ни пера! 성공을 바라네!

Ни дна ни покрышки! 콧 망해버려라!

Сколько лет, сколько зим! 참 오래간만입니다!

Вот тебе бог, а вот порог! 썩 사라져라!

Ни да ни нет. 글썄요.

без ножа зарезать 궁지에 빠뜨리다

사람들은 양태적성구들을 리용하여 서로의 감정과 느낌에 명료성과 예리성을 부여해준다. 양태적성구들은 펼쳐진 환경이나 계기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여준다.

량적성구들이란 의미상 수사에 가깝지만 구체적인수량을 나타내지는 않는 성구들을 말한다.

이 계열의 성구단위들은 크거나 작은 수량을 미정적으로 나타낼수 있다.

레: всего ничего 없는것이나 같다

капля в море 창해일속

ни много ни мало 많지도 적지도 않게

ни кола ни двора 맨주먹밖에 없다

ни гласа ни воздыхания 쥐죽은듯 잠잠하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교육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강성
국가건설에 이바지할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